

순창 농산물, 제주시 '바람몰이'

순창 친환경쌀 친환경 급식 공급 확정 이어... 군, 토마토고추장 등 판매행사 진행

순창군이 제주도 학교급식으로 올해 순창친환경 쌀 400여톤 공급을 확정 지은데 이어 토마토고추장 등 순창의 대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를 진행해 순창농산물 바람몰이에 나섰다.

군은 지난 31일 제주도청 로비 및 구내식당 문화공간 등에서 순창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김종섭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한재현 NH농협 순창군지부장, 이대식 순창농협장, 이두용 구립농협장, 설득환 서순창농협장, 유광희 조공법인대표 등 농업관계자 20여명이 대거 참석해 순창 농특산물의 제주도 유통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방문단은 제주도 정부부지사를 만나 앞으로 순창 친환경쌀을 중심으로 순창 농특산물의 유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 본격적 홍보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홍보행사를 진행한 농·특산물은 친환경 쌀, 아로니아 가공품, 토마토고추장, 완두콩, 복분자 오미자 즙 등이다.

방문단 일행은 제주도청 로비에서 직원들과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순창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순창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를 진행해 순창농산물 바람몰이에 나섰다.

특히 미질이 좋은 친환경 순창 쌀에 대해 집중 홍보해 쌀이 많이 나지 않은 제주도에서의 친환경 쌀 유통에 공을 들였다.

제주도는 최근 친환경쌀의 학교 급식을 확대해 친환경 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군내 식당에서 진행된 친환경쌀 시식행사도 큰 호응을 받았다.

또 순창군이 최근 개발한 발효토마토 고추장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인기를 모았다.

군은 하반기에도 제주도에서 순창농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를 한차례 더 진행하는 것은 물론 농협과 민간기업들과도 교류를 확대해 순창 농산물이

제주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오늘 행사는 청정 제주도에 청정 순창 농산물이 대량 유통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자리였다"면서 "앞으로 제주도는 물론 농협 등 민간 농업관련 기업들과도 교류를 확대해 청정 순창농산물을 제주도민들이 쉽게 만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올해 친환경 급식 쌀 1,600톤 중 50%를 순창을 비롯한 전복 친환경 쌀이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향교, 청소년 문화체험 학교 운영

10월 18일까지 6개월간

선인들의 지·덕·체를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 구인 남원향교에서 10월 18일까지 6개월간 다양한 청소년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17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남원향교가 주관이 되어 총 사업비 6700만원으로 청소년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지역청소년의 인성함양과 우리고장 문화재바로 알기 등 역사문화인식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총 5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데 첫 번째로 우리고장의 문화유적을 직접 돌아보는 '역사문화버스터00'이 있으며, 두 번째로는 예의를 중시하며 집중력 증가와 정신수련에 중점을 둔 투호, 국궁

등 '삼력(三力)을 키워주는 전통수련', 세 번째로 지역배출 대표인물 및 남원 문화유적 바로알기 프로그램인 '도전문화골든벨', 네 번째로는 명륜당에서 즐기는 국악공연, 규방공예, 문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명륜당풍류', 마지막으로 직접 전통 의복을 입고 문묘 분향, 알성, 향음 등을 할 수 있는 '1박2일 선비문화체험'의 5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역학교인 남원중학교와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0월까지 1,530명이 각 반별로 일정을 나누어 향교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기반과 군자의 덕목을 일깨워주는 인성함양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NH, 행복채움금융교실 열어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지부장 한재현)는 지난 30일 인계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협은행 행복채움금융교실'을 열었다.

이날 금융교실은 순창군지부 한유미 계장이 ▲어린이를 위한 용돈관리, ▲어린이를 위한 돈과 금융이야기 등 금융교실과 함께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경찰, 범죄피해자 지원 추진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에서는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나 그(유)가족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일상으로의 조속한 회복을 돕고자 자체적으로 '따뜻한 마음 집합회'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나(유)가족 중 기관 지원 대상 범죄가 아니거나 상대적으로 그 피해가 가벼우나 경제적 빈곤 등 특별히 지원을 해야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피해자나 가족을 위해 순창경찰이 자체적으로 이들을 돕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따뜻한 마음 전하기는 소속 직원들이 가족 경조사를 치른 후 직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음료수 한 병씩 등을 의례적으로 돌리는데, 이 비용을 좀 더 발전적이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북경찰청에서 협약을 맺은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지정기부 형식으로 기금을 입금한 후 이 금액을 범죄피해를 입은 지원 대상자 발생 시 지원하는 제도가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탄소융복합제품 시범사업 추진

울 상반기내 불량 블라드 제거·탄소재질 블라드 신규 설치... 4000만원 투입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도정 핵심사업인 탄소산업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해 탄소재질의 블라드 70개를 구매하여 기준미달 불량 블라드 교체 및 신규 설치 구간 총 9개소(시청로 외 8개소)에 대하여 울 상반기 안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블라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및 차량 진출입로 주변 등 보도 내에 차량진입을 막는 시설물로서, 블라드는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사이 간격은 150cm 정도로 보행자가 쉽게 식별이 가능하고 저속차량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밝은 색 도료를 사용해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남원시에 설치된 일부 블라드가 규격에 맞지 않아 오히려 보행자의 통행과 안전에 불편을 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남원시는 도정 핵심사업인 탄소산업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해 탄소재질의 블라드 울 상반기 안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범사업구간 9개소(시청로 외 8개소)에 대해 총 4000만원을 투입해 탄소블라드로 교체 및 신규 설치하여 유지보수비를 절감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 및 편의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정식 건설과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블라드를 탄소블라드로 교체하고 신규 설치해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지난해 드림스타트 사업 '우수'

순창군이 취약계층 아동에게 전국 최고 수준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군은 지난 30일 경주에서 개최된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에서 2015~2016년 드림스타트 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3월 까지 기초단체 94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본구성,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운영, 자원개발 및 연계, 만족도, 홍보 등 총 6개 분야 32개 지표에 대해

드림스타트사업 전반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순창군 드림스타트는 기본구성,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운영, 자원개발 및 연계, 홍보 등 전 분야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실제 순창군 드림스타트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지역 내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각 가정에 상태를 정확히 진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해 왔다. 황숙주 군수는 "우리군은 아이들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특히 취약계층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건강한 사회 기동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보일러 수리·점검 시행

순창군은 올해 870만원을 투입해 독거노인 가구 등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 150세대를 대상으로 보일러 등 난방시설 점검에 따른 수리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3월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사업 공동 추진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3~5월중 홀몸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마을이장들의 협조를 받아 150가구 지원대상을 선정했다.

오는 6월부터는 한국열관리협회 순창지회(회장 김종식)에서 사업선정가구의 보일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1차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개선사항 확정에 따른 시공자재 구매 후 2차 현장방문을 하여 노후부품 교체 및 수리 하는 순서로 사업을 추진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문의 288-9700

임실엔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